



## 사랑과 관심속에서 꽃피운 무재해 현장

- 두양산전(주)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지났지만 동장군의 마지막 심술인 양 광양의 바닷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 뒤편에 살포시 고개내민 푸르른 새싹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라는 설레임으로 괜시리 미소짓게 만든다. 그 미소 가득 담은 희망차고 즐거운 광양에 전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회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곳이 있다. 조명정비 전문회사 두양산전(주)이다.

1995년 창립하여, 전 세계 400여개의 제철소 중 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조명설계·시공·유지보수 등을 전담하는 두양산전(주)는 1등 제철소에 걸맞는 1등 조명 정비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350만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서 작업의 70% 이상이 낮게는 2m, 높게는 100m 가량의 고소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은 안전에 관한 한 1순위, 아니 0순위도 마



다하지 않는다. 회사 운영목표에도 첫째로 안전작업수행을 꼽고 그 다음으로 생산력과 기술력 향상, 좋은 회사 만들기를 이어 얘기할만큼 안전없는 두양산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 Hard Ware와 Soft Ware의 양면 작전으로 무재해 현장 이룩

「직원들은 안전의식화, 회사는 안전시설물 설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Hard Ware와 Soft Ware의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이곳은 안전시설물 설치 의뢰 시 재차의 독촉없이 바로 일을 진행시키는 포스코의 「One Stop Service System」을 적극 활용하여 설비의 현대화, 안전회를 꾀하고 평소 끊임없는 위험 예지훈련으로 위험개소 Zero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동료의 불안정한 행동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일깨워주는 사랑의 카드 발급제도와 위험설비나 불안전 요소 등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보완하는 안전 실패 Festival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영되는 제철소에서 그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였고, 각 개소에서는 홈페이지에 고장, 민원 등을 접수, 실시간 처리토록 함과 사고사례나 교육자료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토록 하였다.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방문자 확인도 물론 가능하다.

## 즐거운 일터, 웃음 가득한 일터

두양산전(주) 식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얼굴이 참 밝다는 것이다. 웃으면서 일하고 서로간 격의없이 스스럼이 없다.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만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김용운 사장의 경영마인드와 두양산전 식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룩된 결과이리라.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동료로 사랑하고 보살피자는 취지에서 잘하는 일을 칭찬, 이를 누적·관리하여 포상하는 칭찬마일리지 활동과 기혼자는 결혼기념일에, 미혼자는 생일에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휴가와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세세한 곳까지 신경쓰는 두양산전(주)의 활동은 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과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저축장려를 위해 연봉의 15% 이상을 저축하는 직원에게는 저축장려금도 지급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 직원의 9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자격 이상인 직원도 30%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2년을 주기로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계, 집중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과 미연의 사고 예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직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두양산전(주)인 것이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탁구, 족구 등 연중무휴 체육대회가 열린다. 전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실시되고 축구, 볼링,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체력 향상과 안전하고 즐거운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또한 청소년 보호센터인 순천 성심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의 독거노인 4명과 소년소녀가장 2명을 3개팀이 2명씩 맡아 조직적이고 밀착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에도 인색하지 않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한 두양산전(주)는 그동안의 활동과 더불어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을 구축하여 작업장내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끊임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직원 스스로는 물론 동료의 안전도 함께 지켜나가는 공존의 두양산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이다.

그들이 비춰주는 제철소의 환한 불빛처럼 우리네 안전의 길도 환히 비춰주는 기폭제로서의 두양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 기자〉